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윤한진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엡4:17-24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부활의 믿음으로 새롭게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4월 7일	4월 14일
유영환	강민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친교실-격주)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 (21) 죄사함의 권세

본문 : 눅5:17-26

성경에 등장하는 치유사건은 단순한 병자의 고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려는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계속되는 병자 치유 사건속에 담겨있는 복음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건 또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도 단순히 기적 사건으로만 치부해 버린다면 아무런 의미가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뇌졸중 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신이 마비되어 자신의 힘으로는 앉고 일어섬이 불가능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친구들이 그를 병상에 놓힌 채로 데려와 지붕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당시 유대사회의 가옥구조는 오늘날처럼 콘크리트나 벽돌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니다. 특별히 천장은 돌감람나무를 중심으로 여러가지들과 진흙을 문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판판하게 하기 위해 돌러로 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비가 많이 오면 금방 천장이 툭릴 정도로 취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장을 뚫는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풍병자를 데려올때 많은 병자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새치기를 했다는 사실이고, 천장을 뚫을 때 많은 흙이 아래로 쏟아져 아래에 있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머리를 덮었을 것이라는 점이고, 또한 그 집은 중풍병자의 집도 아닌 다른 이의 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무례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누구라도 화를 내고 불편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습니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보통 이 상황이라면 병이 나았다고 말씀하셔야 옳습니니다. 그런데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저항했습니다. 신성모독죄라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의 권세는 당시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쉬운지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이 쉬운지를 물으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의 눈에는 기적이 어려워 보이고 죄사함은 눈에 안보이기에 쉽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죄라는 것이 가볍지 않으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 죄사함의 권세는 단순히 윤리도덕적인 죄사함을 넘어서 근원적인 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리는 그 중풍병자의 삶 자체였습니다. 구원이란 영적인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혼과 삶의 구원을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전신이 마비된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그런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